

현장시선



이 충 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에 이르면 이달부터 LNG(액화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도내에 맨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LNG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을 강점으로 향후 도민들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도내 LNG 도입에 앞서 오래전 LNG를 받아들여 기존 LPG와의 균형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도내 가스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LPG사용 비

제주도내 LNG 도입에 따른 LPG 정책 방향

중이 높다. 일본내 LPG 공급범위는 (LNG주배관 설치지역 제외) 국토면적의 95%를 차지해 한국(1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넓다. 가구수로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5647만 7000세대 중 2410만 2000세대가 LPG를 사용했다. 비중은 약 43%로 한국의 19% 수준에 비해 높다.

또 (社)일본LPG단체협의회 측에 따르면 일본의 LPG공급량은 1996년 1971만t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6년(1396만t)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1462만t) 반등했고 2025년에는 1600만으로 예상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LNG 공급 확대 속에서도 일본에서 LPG가 꾸준히 민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LPG 활용의 강점을 일본의 지형이나 생활문화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했고 정부의 뒷받침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LPG가 지진이나 폭

격 등의 재해 발생시 복구가 용이하다는 점을 업계나 정부가 충분히 인식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생활문화면에서 LPG가 업계의 노력으로 농촌·산간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서민밀착형 에너지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LPG사업자에 대한 배송합리화 지원정책 및 학교·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기(GHP) 설치 확대 등 LPG 공급처 발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향후 제주도 가스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LNG 도입을 계기로 LPG업계가 소외되지 않고 상호보완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도 전역에는 타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의 저비용·친환경적이면서도 재해에 강한 가스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선 LNG 도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도내 146개의 LPG 판매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와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판매점들이 공동운영할 충전·배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LNG도입으로 약자의 처지에 몰리게 될 LPG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독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도내 읍·면지역 신규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확보를 전제로 중소LPG 전소사업을 우대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LPG판매소의 자진폐업시 영업권 보상이나 LPG사업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판매점 총량제 실시와 같은 정책적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가스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도민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제주건설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

사설

미분양 쌓이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도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엊그제 발표한 전국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제주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386만9000원으로 전국평균(353만9000원)보다 33만원이 높았습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808만5000원)이 가장 높고 제주는 인천(394만1000원)·부산(402만3000원)과 거의 비등합니다. 골짜기 충북(226만3000원)에 비해서는 160만60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32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제주는 4억857만원으로 충북(2억3897만원)보다 무려 1억6960만원이 비싼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의 32평 아파트 분양가는 3억520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새 5650만원이 오른 겁니다.

알다시피 제주지역 주택경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590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029건, 2017년 2739건, 2018년 1076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56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역도 주택경기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이 심화되면서 최근 사상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아파트 분양가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더욱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 우려 높은 고령운전자 대책 없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 노년층이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핸들을 잡을 경우 사고발생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주지역 택시운전자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제주도내 택시운전자자는 53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는 1200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택시운전자가 5명중 1명꼴입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은 5.3%에 그쳤습니다. 그게 2014년 10.8%에 이어 올해는 20%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2014년 406건, 2015년 372건, 2016년 353건,

2017년 322건, 2018년 302건으로 5년간 1755건이 발생, 23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14.9%(262건)로 51~60세 44.8%(78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노인 운전사고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이 젊은이보다 2배나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반응 시간 및 속도예측이 느렸습니다. 또 핸들 조작 및 동시 조작능력도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 신체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운전까지 막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고의 우려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마당

대토론회 이후, 달라진 우리의 모습



강 가 연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발 및 용모와 관련된 시대에 뒤쳐진 규정들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꼈고, 개인의 개성이 표현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제주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간다면 보다 민주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역량을 갖춘 학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생들의 바람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해져 올해 5월 8일 선생님, 학부

모님, 학생으로 이뤄진 3주제 대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3가지 안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토론회를 마치고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규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화장, 귀걸이, 파마 등 일부 규정이 새롭게 바뀌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도 염색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보하는 절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들의 의견이 대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의 학교생활은 달라졌다. 전에는 수동적이었던 그날 이후로는 학교의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토론회를 통해 '등교하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었고, 제주중앙인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짧은 일정 아쉬워”

능력(?)있는 제주도의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9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6일 시작과 함께 이틀만에 주요 실적을 점검하면서 능력(?)있는 도의회라는 여론이 팽배.

도의회의 감사는 첫날과 둘째날에 걸쳐 기획실, 특별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관광국, 농축산식품국 등 주요 실적을 포함시켜 초장에 마무리 짓는 일정.

이를 두고 관가 주변에선 “지난 1년간의 도정을 살피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니냐, 의정활동 수집 등 감사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고 일침. 오은지기자

지진대피소 등 빅데이터 분석

○…서귀포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지진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연말까지 진행중.

이 분석사업은 학교 운동장과 공

원 등 62곳의 지진대피소와 25곳의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 발생시 실제 생활인구 규모에 적합하게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돼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JDC, 미래전략수립 워크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6일 제주 시내 리조트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해 'JDC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홍보.

JDC는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영역의 일환으로, 국제도시로서 제주의 새로운 방향과 JDC의 미래상 모색이 워크숍의 취지였다고 설명.

이에 도출된 결과는 국제도시 조성 및 JDC 미래전략 수립 영역을 통해 고도화를 거쳐 미래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 조상윤기자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사, 철학박사, 역학상담사, 작명사 1급

용산절학관
서귀포시 신흥앞 송월타운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 494,244㎡(분할매매 가능)
•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용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